



티의 이야기

연령대: 35~40세

직업: 행정 보조원

구사 언어: 영어/베트남어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엄마, 티 응우옌은 가게비가 얼마나 금세 불어나는지 잘 알고 있다.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자녀의 정기 예방접종은 무료이지만, 일반의 상담비가 가게 예산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줄까 봐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많은 일반의 진료소들이 전액 일괄 청구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녀는 아이의 진료에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셔서 아이가 편안해했어요,”라고 티는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청구서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메디케어에서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를 지불했고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었죠.”

티에게 이러한 지원은 자녀의 의료 서비스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비가 일괄 청구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정말 마음이 놓여요,”라고 그녀는 설명한다. “덕분에 가게 예산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우리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에요.”

- 티



상세정보를 보려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인근에서 일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찾으려면,
health.gov.au/bulkbilling에서 확인하세요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